

MAMA는 YG 잔치?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씨아이·씨엘 컴백 등 간판급 대거 출연
SM 출연 미확정...FNC는 불참 예고

케이بل채널 엠넷이 주관하는 가요 시상식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가 특정 기획사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 가수의 출연여부가 큰 이슈가 됐고, 그 가수의 소속사 동료들이 대거 특별무대를 꾸밀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2일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5 MAMA'에는 빅뱅과 씨아이, 씨엘, 아이콘 등 YG엔터테인먼트(YG)의 '간판급' 가수들이 모두 출연한다. YG와 함께 올해 국내 가요계를 양분했던 SM엔터테인먼트(SM)의 간판이자 올해 큰 활약을 보인 소녀시대와 엑소는 23일 현재까지 출연을 확정하지 못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는 멤버들의 군복무로 참가가 어렵다. 씨엔블루,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소속가수들의 불참을 알렸다. 이들 외에 23일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출연자는 박진영 갯세븐 방탄소년단 자이언티 등이다.

출연진 면면으로도 올해 MAMA는 YG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지만, 무엇보다 빅뱅의 출연여부로 MAMA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빅뱅의 존재감을 높여준 결과를 낳았다. 18일 MAMA 간담회에서 엠넷 관계자는 "YG와의 불화설은 사실무근"이라며 "빅뱅과 아이콘이 좋은 무대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여드리겠다"며 YG 측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더욱이 빅뱅은 5월부터 싱글을 잇달아 내고 차트를 휩쓸어, 주요 부문 수상도 예상된다.

여기에 씨아이와 씨엘은 MAMA에서 '컴백무대' 꾸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신곡을 낸 씨엘은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중이고, 12월 1일 신곡을 내는 씨이는 MAMA에서 '컴백 스페셜' 무대를 꾸민다. 이래저래 YG 가수들이 주목받게 될 상황이다.

빅뱅이 음반을 내지 않았던 작년 MAMA는 3개의 대상 중 엑소가 '올해의 가수상'과 '올해의 앨범상' 2개를 가져갔다. 빅뱅의 태양은 '눈 코 입'으로 소유·정기호의 '썸'을 제치고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유재석이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 천재화가(왼쪽)와 수행비서로 카메오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시청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진제공 | MBC



'내 딸 금사월' 유재석 투입 무리수?

화제성에 묻힌 연기자들

카메오로 출연...방영 전부터 큰 화제 예고편·하이라이트 영상 조회수 폭발
시청률 큰 효과는 못 봐...일회적 불과

"유노님" 유재석이라고 다 통하는 건 아니었다.

유재석은 22일 방송한 MBC 주말드라마 '내 딸, 금사월' 24화에 해터 진(전인화)의 수행비서와 천재화가로 두 차례 카메오 출연했다. 통틀어 채 10분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개그맨다운 코믹한 연기는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청률 면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더욱이 유재석이 28일 방송분에서 한 차례 더 출연할 예정이란 사실

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벤트성 출연으로 인해 드라마를 위해 힘써온 연기자들의 노력이 헛되이 여겨지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재석의 '내 딸, 금사월' 출연은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출연중인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무한드림' 편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그의 출연소식이 알려지자 방송 당일 인터넷으로 예고편을 보려는 시청자가 동시에 몰리는 바람에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그 결과 유재석이 출연한 예고편 조회수가 22일까지 방송한 24회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방송 후인 23일 현재 유재석 출연 장면을 엮은 하이라이트 영상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조회수가 91만8500회에 이른다. 드라마가 지금까지 전개되면서 극적 전환점이 된, 백진희

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된 전인화의 영상이 42만3599에 그친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재석이 출연해 '내 딸, 금사월'을 처음 봤다"는 글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드라마 주인공들이 9월부터 활약하고 있지만, 유재석이 드라마의 여러 기록을 새로 쓰는 모양새다.

온라인에서 유재석의 카메오 출연이 큰 화제를 모았지만 제작진이 가장 기대한 시청률에서는 크게 웃지 못했다. 유재석이 출연한 24회는 26.7%(닐슨코리아)로 전날 23.9%보다 올랐지만, 토요일보다 일요일 시청률이 높은 패턴은 유지됐다. 앞선 2주 일요일과 비교하더라도 8일은 27.2%, 15일은 27.3%로, 유재석이 출연한 24회보다 높았다. 결국 시청률 면에서는 '유재석 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한 셈이다.

백슬비 기자 bsm@donga.com

송지효 '초급쾌체' 캐스팅...한류 여신으로

한·중·불 합작 코미디액션 영화

새로운 '한류 여신'의 탄생이다.

연기자 송지효(사진)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 여자 연예인까지 포함한 인기 순위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몸값을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등에서 진행한 인기투표에서 송지효가 1위를 차지하면서 팬덤을 키우고 있고, 국내외 관계자들도 송지효의 스타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에서 영화에 이어 드라마도 출연제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급쾌체'는 한국·중국·프랑스 합작 코미디액션 영화로, 송지효가 한국을 대표해 코믹

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국보급 인기를 받고 있는 데는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이 바탕이 됐다. 유재석, 김중국 등 남자 멤버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할 말 다하는' 흥일점으로 사랑받고 있다. '런닝맨'이 중국 저장TV에서 '달려라 형제'란 이름으로 제작돼 시청률 5%를 넘기는 것과 별개로 송지효가 출연하는 원작도 인기가 높다.

중국 팬들은 SNS 등을 통해 "귀엽고 보이시한 그에게 자꾸 빠져들게 된다"며 송지효의 매력을 분석까지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11월 24일)

세종문화회관 무대 오른 장사익



쭈셔놓아 끝내 울음을 토해내게 하는 것일까. 이 말의 단정할 수 없음, 표현할 수 없음의 한탄스러움을 조금이라도 실감하려거든, 장사익(사진)을 들어라.

1996년 오늘, 나이 마흔다섯에 세상 처음 자신의 소리를 담아 음반을 낸 한 사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무대에 섰다. 거친 듯 드문드문 난 수염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를 한 사내는 애절하게 치솟는 고음의 날카로운 혹은 탁성에 절절함을 얻은 목소리로 듣는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소리꾼' 장사익. 1949년 충남 홍성 태생의 "이름 없는 촌놈"이 세종문화회관에 나왔다. '장사익 소리판-하늘 가는 길'이었다. 그 1년 전 처음으로 정식 앨범을 낸 그는 특유의 탁성과 고음으로 불과 1년 만에 대중의 입소문을 타고 대형 무대에 섰다.

"무작정 쳐들어갔어요. 나 같은 이름 없는 촌놈이 그런 무대에 선다는 게 얼마나 통쾌해요. 이런 게 사는 재미 아니겠수.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요." (1996년 11월 16일자 한겨레)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겸손하게 웃으며 속내를 진솔하게 드러내는 그는 무대에서도 똑같았다. '절레절', '꽃구경' '하늘 가는 길' 등 신선한 인생살이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올 목소리가 아니며, 노래가 될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은 평했다.

장사익은 고교(서울 선린상고, 현 선린인터넷고)를 졸업하고 보험사로부터 시작해 과일장사, 가구점 점원, 카센터 직원 등 술한 직업을 전전했다. 하지만 끼는 어쩔 수 없었다. 고교 졸업 직후 회사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가수를 꿈꾸며 노래를 배웠다. 꿈이었을 뿐이다.

이후 1980년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귀에 박힌 동네 할아버지의 쇠납(태평소) 소리를 떠올렸다. 한 국악동호회에서 태평소를 불었다. 1994년 전주대사습놀이 금산농악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하기도 한 그는 피아니스트 임동창을 만나 비로소 무대를 익혔다. 이광수의 사물놀이패와 어울려 태평소를 불 무렵이었다. 공연 뒤편에서 부른 노래에 임동창은 공연을 제안했고, 이는 결국 음반으로 이어졌다.

"푸짐하게 노는 거지유. 요새는 잘 놀 줄 몰라 구 그저 처음부터 때리구 부시구 하는데, 우리들이 한 번 노는 걸 보여줄라구유. 우리 노는 건 차차 루 올라서 정점에서 딱 끝내야 하는 거거든요." (위 신문)

정작 "노다"고 말하지만, 천천히 차올라 마침내 정점에 올라서야 서서히 폐부를 아프게 하는 그 무엇, 그의 절창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 빅 마우스

● "치어러디 출신 아내, '아파트' 노랜만 나오면 흥분해." (개그맨 문세운) 23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치어러디 아내의 '직업병'을 소개하며.

● "웃음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방송인 박명수) 23일 방송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자신의 웃음철학을 들려주며.

● "2억치고, 너무 안 망가졌다." (누리꾼 awdr**) 23일 KBS 2TV 월화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의 신민아 '똥녀' 분장에 2억 원이 든다는 인터넷 기사 댓글중.

등심가 창업 궁금하십니까? 바로 전화주세요! www.gogizip.kr

등심가에서 “창업” 똑똑하게 시작하자

광고하지 않고 소문으로만 가족끼리 **성공릴레이** 오픈 중!

A급 상권매장 20호점 업종 변경 특혜 • 기존 매장 변경시 상담후 결정

일품등심가는 생등심을 신선한 냉장 상태로 프라임급으로 공급합니다.

체인점 문의 1599-9273

등심가

불황에 뜯다!

생등심!!! 삼겹살 보다 싸다!

생등심 500g 23,000원

소갈비살 4인분 시키면 4인분 공짜

세상에 이런일이...

- 최상급 소고기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
- 직영공장 직접 물류로 **가맹점 수익 극대화** 창출
- 기존 매장은 **간단한 리모델링**으로 **창업**이 가능
- 원팩 포장 시스템**으로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운영가능
-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창업시스템**으로 쉬운 매장운영

등심가 스페셜 메뉴

- 생등심
- 생삼겹살
- 소갈비살
- 소고기 썬트
- 생고기 썬트
- 소갈비
- 돼지갈비